

경로당 이용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시 송파구 노인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factors in Economic Dependency in the Senior Center for the Elderly-
on the Basis of Elderly in Songpa-gu, Seoul-

가천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이애련**

가천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겸임교수 김지은***

Dept. of Social welfare, Gachon..Univ.

Professor Lee Ae -Lyeon

Dept. of Nursing, Gachon..Univ.

Adjunct Professor Kim, Ji- Eu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about a community center for elderly users identifies factors influencing economic dependenc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that contribute to increased economic dependency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venting conflict between caregivers and elderly dependents. The subjects are 204 elderly persons who are community-center users in SongPa-Gu. Thirteen dong (administrative areas) were chosen randomly in a cluster sample from among 26 dong in Soungpagu containing a total of 158 community centers for the elderly. I obtained informed consents for my research from all subjects, and collected data by conducting interviews from June 28th, 2011 to August 7th, 2011. The data was analyzed by

* 이 연구는 2012년도 가천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 주저자 : 이애련 (haeng@gachon.ac.kr)

*** 교신저자 : 김지은 (j-eun@naver.com)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and multi regression analysis. The mean economic dependency score was 3.23, meaning that subjects with this score are dependent at a level that is “over intermediate”. The level of formal education, homeownership, financial assistance from family and the number of families, financial assistance to the family and the number of families, economic life satisfaction, self efficacy and social support

Key Words : 경노당 노인(The community elderly center users), 경제적 의존심(Economic dependency), 가족내 경제적 교류(Financial interchanges within families),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I. 서론

우리나라는 고령화 증가폭이 1980년 ~ 2050년 사이 30.5%로 OECD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17년에는 13.8%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도달 할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2060년 한국의 인구는 4396만 명으로 고령자수는 인구 10명 중 4명(40.1%)을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1). 노인은 고령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신체적, 인지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가족과 친구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사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돌봄이 필요하다. 자신이 활동 할 수 있는 노인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 심리적, 경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게 되고, 노인문제는 앞으로 증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을 보완하고 대체해 줄 수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2010)에 따르면 요양시설이 2005년 543곳에서 2010년 3311곳으로 증가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가 2008년 약 29만명에서 2010년 약 6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유형의 다양화와

여성권리의 확대는 노부부 혹은 단독가구의 증가, 기존 주 부양자였던 여성의 활발한 직업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부양 전담 의식이 낮아져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노인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한편, 노인은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의 부분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의존성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비용(이선이, 1998) 뿐 아니라 부양자의 심리적 부담감과 신체적 부담감을 증가시키고, 피부양자와 부양자 간 갈등이 증가하여 노인학대로 이어지기도 한다(오영실, 2006).

이에 노인 의존성과 의존성 관련요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고(박경옥, 2004),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의존성의 여러 속성 중 노인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속성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속성으로 나타났으며(김지은, 2011; 남정자, 1992; 박경옥, 2006), 이는 농어촌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창기와 박일연(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의존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 심

리적, 경제적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의존을 낮추기 위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규명하여 전체 의존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빠르다. 경제적 의존이 높으면 피부양자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노인 학대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김창기·박일연, 2003; 오영실, 2006),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단체활동 참여율이 낮고, 주거활동이 불편하고,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정운태, 2010). 그러나 경제적 의존성을 단독으로 연구한 것은 드물며, 노인의 경제적 의존정도를 확인하고, 경제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규명하여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을 제공하여 노인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의존성 및 경제적 의존성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Brickmen, 2002; Cott and Gignac, 1998),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Gardner and Helmes, 2006), 시설에 있는 노인(Dassen, Dijkstra, & Lohrmann,)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이는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한정되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여가생활이 가능한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의존성 관련연구는 드물다. 경로당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에 대해 연구한 김창기와 박일연(2003)은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이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의존성에 대한 관련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한편, 시설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해 의존성이 높으며(Dassen, Dijkstra, & Lohrmann,), 경로당 이용노인의 경우 동거노인보다 독거노인이 많고(이재모, 2004), 여성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노인이 많은데(김창기·박일연, 2003: 17), 이는 경제적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박경옥, 2006; 안은숙·최영희, 1999; 김지은, 2011).

따라서 경제적 의존성의 선행요인으로 확인된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포함하며, 비교적 신체적으로 자유롭고 단체활동과 여가선용이 가능한 경로당 이용노인의 경제적 의존성과 경제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경로당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를 이용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의 개발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노후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초고령화사회에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노후대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가선용이 가능할 정도의 신체기능이 있는 도시 지역 내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의존성 정도 및 경제적 의존성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경로당 내 노인대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을 감소시켜 부양자와 피 부양자간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의존성과 경제적 의존성

의존성이란 일반적인 환경에서 스스로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하는데 타인의 도움이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성향(Benoliel, McCorkle & Young, 1980; 김지은, 2011)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인 지지나 안심, 요구 충족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물건 등에 의지하는 것(박경옥, 2004), 혹은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에 신체적,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타인의 도움을 얻어 요구를 충족시키고 노인이 필요한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남정자, 1991) 선행 연구를 통해 의존성은 요구 혹은 필요와 도움 혹은 지지의 속성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로

Table 1. 노인의 의존성과 경제적 의존성

	연구대상	의존성 평균 점수	경제적 의존성 평균 점수
남정자 (1992)	노인 환자	2.90 ± .50	3.43 ± 1.35
김창기와 박일연 (2003)	농어촌 경로당 이용 노인	2.05	2.70
박경옥 (2006)	지역사회 거주 노인	3.73 ± .63	1.34 ± 1.06 (역 상관점수)
김지은 (2011)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2.71 ± .49	4.39 ± .54

정의되고 있다. 즉 한 개인의 의존성 정도는 개인이 도움을 요구하는 정도로 측정되고 있으며 모든사람은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전 생애 걸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따라서 의존은 정상적인 발달과정의 한 부분이다.(Brenchin, 1998; 이명희, 2003),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존성 측정도구는 개발자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대부분 신체적 의존성을 기본으로 그 외 인지적 의존성, 사회 심리적 의존성, 경제적 의존성을 포함하여 개발되었다(김지은, 2011; 남정자, 1992; 안은숙·최영희, 1999; 이선이, 1998; Blenkner, 1995; Brickman 외, 2002). 의존성의 4가지 속성 중 경제적 의존성은 직업의 상실로 부터 초래되며, 노인들은 현재 직업을 가진 세대와의 역할 전환이 요구되면서 자연스럽게 의존하게 된다 (Blenkner, 1995). 경제적 의존성은 경제활동의 물질적 소득을 포함하여 경제적 자원을 얻는 데 근접성이 제한됨으로 나타난 의존성을 의미하며, 경제적 자원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의지하는 상태를 말한다(송영민, 2002). 경제적 의존이 높으면 피부양자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노인 학대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단체활동 참여율이 낮고, 주거활동이 불편하다고 하였다(김창기·박일연, 2003). 경제적 속성의 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생활비를 마련할 때(박경옥, 2006), 식생활 비용, 재산관리, 간호와 치료비용, 일상용품 구입비용, 보약, 건강식품 구입비용에 대한 타인의 의존정도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이선이, 1998).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의존성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의 의존성을 확인한 연구에서 경제적 의존성은 다른 속성에 비해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의 차이도 현저하였다(Table1). 의존을 낮추는 방안으로 신체적, 인지적, 사회 심리적, 경제적 속성은 부양자와의 갈등과 노인학대의 직접적 원인이 되므로, 의존의 여러 속성 중 전체 의존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의존에 대한 관련요인을 규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전체 의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2. 경로당 이용노인과 의존성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오락 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의 교환 및 기타 여가와 휴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노인복지법 제 36조), 현재 점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로당은 노인시설 중 인지율이 99.3%, 이용 희망률이 47.2%로 높으며 우리나라 재가노인의 가정 외적 활동의 주된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여가시설로 확인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우리나라에서 경로당은 사실상 이용자들이 원하는 만큼 긴 시간동안 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가진다는 점에서 가정의 기능을 대신해

왔다(이영세·이인수, 2002).

경로당 이용노인은 일반노인 집단과 비교하여 여성이 많고, 배우자 비 동거노인이 많으며,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유성호, 2009). 선행 연구에서 여성일수록(박경옥, 2006: 348), 배우자와 비 동거하는 노인일 수록(김지은, 2011), 고령일수록(김창기·박일연, 2003; 안은숙·최영희, 1999; 이인정, 1999), 교육수준이 낮을수록(박경옥, 2006), 저소득층 노인일수록(김지은, 2011; Brickmen, Aliza, Karen, Marilyn; Jason & Yaakov, 2002) 노인의 존성과 관련 있는 요인들로 밝혀진 바 있다. 경로당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노인의 경우 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의존성의 핵심개념인 도움에 대한 요구에 더 민감하다(김광순, 2005). 따라서 복지 서비스나 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을 받는 노인에 대한 의존성 연구가 있어 왔으나, 방문보건서비스를 받는 노인(김지은, 2011),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조보경, 2010)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제한적이다. 경로당 노인의 의존성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노인학대를 규명하기 위한 한 변수로 의존성을 확인하였을 뿐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은 없다(김창기·박일연, 2003). 의존성 및 경제적 의존성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미비한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의존성과 경제적 의존성 영향 요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3. 노인의 의존성 및 경제적 의존성 영향요인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노인의 의존성 영향 요인은 크게 인구 사회학적 요인(연령, 성별, 동거 상황, 교육수준, 종교유무, 여가생활 여부, 봉사활동 여부), 경제 관련 요인(직업유무, 자가주택 보유여부, 노후생활비 지출 부분,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 경제적 자원 도움여부, 경제적 만족도), 자

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존성 속성 중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 영향 요인을 규명한 단독연구는 없으나, 경제적 의존성은 다른 속성의 의존성과 전체 의존성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오영실, 2006) 전체 의존성에 대한 관련요인은 경제적 의존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문헌고찰을 하였다.

1) 인구 사회학적 요인

인구 사회학적 요인은 노인의 의존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선행 연구에서 유의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연령, 성별, 동거상황, 교육수준, 종교유무, 여가생활 여부, 봉사활동 여부가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나(김기미·김현경, 1996; 남정자, 1991; 박경옥, 2004; 안은숙·최영희, 1999; 이인정, 1999; Birtchnell, 1998; Dassen, Dijkstra, & Lohrmann, 2003), 연령과 의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없다는 결과도 있다(Jasmin & Trygstad, 1979).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김기미·김현경, 1996; 남정자, 1991; 박경옥, 2006) 의존성이 높다고 하나, 성별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다고 한 연구도 있어(박경옥, 2004) 연령과 성별이 의존성을 높이는 관련요인이라는 데 모두 일치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의존성이 높지만(김기미·김현경, 1996; 남정자, 1991; 박경옥, 2004; 안은숙·최영희, 1999), 동거인의 유무 자체가 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의 관계를 떠나 의존성 선행요인이 된다. 이 요인은 독거노인과의 의존성 차이를 규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박경옥, 2006; 안은숙·최영희, 1999; Hwang, 1993). 또한 단순히 노인과 동거를 하는 여부에서 나아가 동거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의존

성은 감소하고 독립성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Choi, Kim, & Won, 1998).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은 1998년 53%에서 2008년 33.6%로 감소했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16.2%에서 2008년 20.7%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노인 독거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존성이 높은 노인 수가 함께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여 노인 집단에 따라 의존성과 관련이 있는지 재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수준에 따라 노인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Cott and Gignac, 1998; 박경옥, 2006) 그렇지 않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어(김지은, 2011; 박경옥, 2004), 이 역시 연령이나 성별과 마찬가지로 관련 요인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

종교는 의존성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김기미·김현경, 1996; 남정자, 1991), 이는 종교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오는 상실감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Hunsberger, 1985). 노인들의 종교적 활동과 종교심은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감을 감소시켜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Makides & Kyriako, 1983).

인구 사회학적 요인 중 여가활동 및 봉사활동과 의존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노인의 여가생활 및 봉사활동의 다른 주체의 연구를 통해 여가활동과 봉사활동이 의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가생활은 노년기를 만족스럽고 건설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여가활동과 같이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행동은 강제적인 압력에 따라 수행되는 행동에 비해 개인의 자아 개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전숙자, 2009).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역시 그 참여가 노년의 의미있는 활동과 흥미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노인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Cohen & Mansfie, 1989).

2) 경제 관련 요인

경제 관련 요인은 자가주택 보유여부, 직업유무, 노후생활비 지출 부분, 경제적자원 수혜여부, 경제적자원 도움여부, 경제적 만족도 같은 경제적 능력과 관련된 요인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경제적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여전히 빈곤계층은 존재하고 있고, 그 중 노인은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경제적 생산력이 떨어져 빈곤의 연속선상에 있게 된다. 이는 신체적, 사회 심리적, 인지적, 경제적 의존성의 속성과 모두 관련이 있으며(김지은, 2011; Hwang Y. C., 2011; Brickmen, A. M et al, 2002), 특히 경제적 의존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정운태, 2010). 노인의 노화자체가 생산능력의 저하를 의미하며 이것은 부양자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주는 동시에 피부양자에게 경제적 의존성을 안겨준다(이인정, 1999). 개인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의존성이 높으며(박경옥, 2004), 용돈(생활비) 정도에 따라서도 의존성 정도가 달라지는데(한정석, 1983), 객관적 용돈 수준 외에도 용돈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의존성에 차이를 보인다(Hwang, 1993).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의 의존성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경제 관련 요인은 대부분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나 중재가 어려운 자가주택 보유여부, 직업유무와 같은 경제생활에 국한되어 있었다. 경제적 요인 중 중재가 가능한 노인의 노후생활비 지출 부분,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및 경제적 자원 도움 여부와 경제적 만족도에 따른 의존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노인의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노인 스스로 또는 사회의 대책마련을 위한 자료로 중요하다.

3)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데(Bandura, 1986), 이 때,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노인의 건강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건강상태는 노인이 과도하게 의존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이다(안은숙·최영희, 1999). 자기효능감과 경제적 의존성과의 관계를 직접 확인한 연구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자기 효능감과 의존성, 자기효능감과 신체적 의존성과의 관계만 확인하였으며, 이 때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지은, 2011; 김세종 외, 1998).

노인의 자기효능감 연구는 노년기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Davis, 1989).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약화로 건강 증진 행위가 낮아지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삶의 주요한 여러 부분에서 그들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게 되어 건강 행위를 독립적으로 이끌지 못해 노화로 약화된 기능의 회복이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Bandura, 1986). 이에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다고 보고하여 경제적 의존성과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Mackue et al, 1997).

취약계층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전체 의존성 및 의존성의 각각의 속성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 김지은(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 일수록 의존성의 각각의 모든 속성과 전체 의존성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경제적 의존성($p=.002$)이 다른 요인에 비해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노인에게 있어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며(Loop, 1993),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관심을 끌고 사랑 받으며 존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 가능성이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돌봐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Cobb, 1976), 사회적지지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른사람이 돕고자 하는 것에 기인한다(Cohen & Syme, 1985).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상호작용기회를 일상적 또는 정구적으로 제공하고, 타인으로 부터의 환류를 통하여 개인의 역할 수행을 향상 시키게 된다(Cohen & Syme, 1985). 특히 사회적지지가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자립의지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여(Cohen and Wiles, 1985) 경제적 의존성과의 관계 규명은 필요하다. 취약계층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경제적 의존성을 확인한 김지은(201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정보적, 물질적, 감정적, 자존감 지지의 모든 속성은 경제적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재가노인에 비해 시설노인에서 더 낮고(박경민, 1994), 경로당 노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회적 교류가 있으므로, 경제적 의존성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회적 지지와 경제적 의존성과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경제적 의존성에 대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서 이용가능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1) 일반적 배경에 따라 자기효능감, 사회

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2) 일반적 배경에 따라 경제적 의존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3)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의존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4) 일반적 배경 및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에 따라 경제적 의존성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로당 이용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노인·청소년 질서 계도사업, 노인전용청춘극장운영을 송파구 자체예산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송파구의 노인복지사업(노인시니어클럽,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 취업활동영역개발)은 서울시의 다른 구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자료는 노인복지사업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송파구를 선정하였다. 158개의 경로당 소재의 송파구 26개동을 무작위 집락 표출하여, 13개 동을 선정하였으며, 한 구역 당 경로당 4개를 편의 추출하여 총 52개의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 285명이 선정되었다. 부실한 자료 81부를 제외한 204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 수로 전국 경로당 등록 수 60737로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 비율이 전체인구의 6%로(박경옥, 2006) 신뢰구간은 ± 3.72 (CreativeResearch Systems)이며, 신뢰도 95%일 때, 본 연구에서의 표본은 최소 128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계분석에 이용된 204명은 이를 충족하였다.

3. 자료수집도구

1) 경제적 의존성

의존성 도구는 남정자(1992)의 의존성 도구를

수정 보완한 김지은(2011)의 도구에서 경제적 의존성 문항인 10문항을 채택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5점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최소 10점에서 50점의 범위 내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가는 .80 이다.

2) 경제적 의존성 관련요인

① 경제 관련 요인

경제 관련 요인은 경제생활, 경제적 자원 수혜/도움 여부, 심리적 변인으로 구성된 12문항이다. 자기주택 보유 여부, 직업유무, 노후생활비 지출 내역은 기존 선행연구의 의존성 영향 요인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선정된 기본적인 경제생활 항목으로 채택하였으며, 선행연구 검토 과정을 거쳐 박미려(2007)의 '경제적 자원 수혜 도구' 4문항으로 확인하였으며, 심리적 변인에서 박미려(2007)의 경제적 심리적 변수가 2문항밖에 없음을 보완하여 이형숙(1996)의 우리나라 복지정책 만족도 3문항을 포함하여 확인하였다. 새로 구성된 '심리적 변인' 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5가지 항목에 대해 한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심리적 변인으로 명명하였다. 모든 항목에 대해 요인 적재량은 각각 0.3이상이고, 고유값(Eigen Value)도 일반적인 기준인 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68.2%, Cronbach's α 계수가 .88로 나타났다.

② 자기 효능감

노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반화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Chen, Gullyand Eden(2001)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노지혜(2005) 것을 사용하였다. 8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2이었다.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의존성과의 관계연구는 자가간호 행위와 관련 있는 신체적 의존성(김세종 외, 1998; Crobtree, 1986)과의 관계나, 전체 의존성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한 김지은 (2011)의 연구가 있다.

③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과 상호관계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환경으로(송미순, 1991), 본 연구에서는 Cohen & Hoberman(1983)의 도구를 기초로 송미순(199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계수는 .86 이었다. 노인들은 경로당과 같은 공식적인 지지체계를 이용하므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교류와 노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박경민,1994; 이재은, 2009).

4. 자료 수집 절차

경로당 노인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협조를 동의한 노인으로부터 자료 수집을 하였다. 경로당 등록노인에게 설문 문항을 읽어주고 응답하는 일대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6월 28일부터 2011년 8월 7일까지 시행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 19.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경제 관련 특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경제적 의존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각각의 도구는 Chronbach's α 값으로, 타당도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적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경제 관련 특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의존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sample t-test, one way ANOVA, cross tab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4) 경제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관련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여성노인이 143명(70.1%), 남성노인이 61명(29.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으며 이는 현재 경로당 이용노인의 성비 분포와 일치한다(이숙희, 2008; 임춘식 외 4, 2006). 연령은 평균 70.28세로 연령을 살펴 본 결과 65 - 74세 노인이 109명(53.4%)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자 중 57명(27.9%)이 사별 노인이었으며, 현재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136명(6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1인과 동거하는 노인이 66명(4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거노인을 포함하여 연구대상자의 동거 가족수는 평균 1.67명

Table 2. Econom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4)

Variables		Categories	n	(%)	Mean ± SD
Economic resource	One's home ownership	yes	138	67.6	
		no	66	32.4	
	Job	yes	54	26.5	
		no	150	73.5	
	The main cost area of living for old age	housing expenses	54	26.5	
		groceries expenses	48	23.5	
		clothing expenses	4	2.0	
medical expenses		90	44.1		
	culture expenses	8	3.9		
Economic resource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family	yes	101	49.5	
		no	103	50.5	
	The number of assistant	1	51	24.5	1.74 ± 1.09
		2	32	15.7	
		3	12	5.9	
		4 ≤	6	3.0	
	Financial assistance to the family	yes	50	24.5	
no		154	75.5		
The number of beneficiaries	1	32	15.7	1.46 ± .73	
	2	15	7.4		
	3 ≤	3	1.5		
Psychological variables	Economic life satisfaction				3.14 ± .80
	Life satisfaction				3.13 ± .72
	Social welfare satisfaction				2.79 ± .88
	Elderly welfare satisfaction				2.81 ± .88
	National long term care insurance satisfaction				2.71 ± .89
	Total satisfaction				2.91 ± .71
Total			204	100	

이었다. 또한 동거인 중 배우자가 136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99명(27.3%)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77명(37.7%)으로 교육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또한 종교가 있는 노인이 175명(85.8%), 여가생활이 있는 노인이 120명(58.8%),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이 165명(80.9%)으로

많다.

자가주택을 보유한 노인 집단은 138명(67.6%)이었고, 직업이 없는 노인은 150명(73.5%)이며 노인이 주로 지출하는 분야는 보건의료비(90명, 44.1%)이다.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노인은 101명(49.5%)으로 절반 정도로 나타났으며,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은

50명(24.5%)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도움을 받는 평균 가족수는 1.74명이었으며, 노인이 도움을 주는 평균 가족수는 1.46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중 심리적 변인의 전체 만족도는 평균 2.91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2).

2.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경제적 의존성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 평균 점수는 2.35점이었으며, 사회적지지 평균 점수는 2.05점 이었으며, 경제적 의존성 점수는 평균 3.23점으로 ‘보통’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경로당 이용노인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2.35점으로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3.13점(박경민, 1994)과 경제적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기효능감 점수 2.84점(김지은, 2011)보다도 낮았다.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낮설고 새로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하는 데(Bandura, 1986), 경로당 노인은 일반노인에 비하여 여성노인이 많고, 사별노인이 많아 자기 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확신하게 되면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자기효능감이 경제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 된 바, 경로당 노인의 의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행동변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Bandura(1986)는 자기 효능감의 증진 방안 중 하나로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언어적 설득을 강조하였는데, 경로당 운영자들은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사 소통 이용 방안에 대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하겠다.

경로당 이용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4점 척도로 평균 2.05점, 일반노인의 사회적지지 점수는 2.64점(이영자,1999), 2.68점(박경민, 1994)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는 2.08점(박정미, 2008)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사회적지지의 요인을 살펴보면 정보적 지지가 1.75점으로 가장 낮았고, 물질적 지지가 1.99점, 자존감 지지가 2.24점, 감정적 지지가 2.34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요인과 경제적 의존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인 경로당 이용노인에게 가장 낮은 요인인 정보적 지지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자존감지지 ($p<.001$), 감정적 지지($p<.01$), 물질적 지지($p<.05$)의 순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자존감 지지와 감정적 지지를 이용하면,

Table 3.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of the Subjects, Economic Dependency of the Subjects

	Mean±SD	Min	Max
Self Efficacy	2.35 ± .84	1	4
Social Support	2.05 ± .52	1	5
Informational support	1.75 ±.53		
Material support	1.99 ± .69		
Emotional support	2.34 ± .70		
Self esteem support	2.24 ± .72		
Economic Dependency	3.23 ± .70	1	5

Table 4. Differences of Economic Dependency by Socio-demographic Factors.

(N=204)

Variables	Categories	n	Dependency±SD	t/F	p-value
Sex	Male	61	3.32 ± .76	1.236	.218
	Female	143	3.19 ± .67		
Age (years)	≤ 64	32	3.42 ± .63	1.278	.283
	65 - 74	109	3.24 ± .68		
	75 - 84	57	3.13 ± .78		
	85 ≤	6	3.48 ± .35		
cohabitation situation	Without one's spouse	68	3.33 ± .64	3.086**	.002
	With one's spouse	136	3.02 ± .77		
	Without one's children	99	3.25 ± .70	.445	.657
	With one's children	105	3.20 ± .70		
Level of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77	3.52 ± .62 a	9.292***	.000
	Middle school	53	3.18 ± .69 b		
	High school	42	2.93 ± .73 b		
	University	32	2.98 ± .61 b		
Religion	yes	175	3.25 ± .69	1.361	.175
	no	29	3.06 ± .75		
Leisure activities	yes	120	2.94 ± .59	-5.096***	.000
	no	84	3.42 ± .70		
voluntary service	yes	39	3.17 ± .68	-3.424*	.015
	no	165	3.47 ± .73		

*p<.05, **p<.01, ***p<.001

a,b Duncan 사후 검정으로 통계 처리 함.

경제적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감정적 지지와 자존감지지 점수가 높은 경로당 노인에게 적합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삶에서 사회적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은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로당 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일반노인에 비해 낮은 반면에, 경로당 이용노인에게 높은 감정적 지지와 자존감 지지와 경제적 의존성과의 상관관계가 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개발로 경제적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3. 경로당 이용노인의 경제적 의존성 관련 요인

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의존성의 차이

경로당 이용노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중 경제적 의존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배우자 동거 여부, 교육 수준, 여가생활 여부, 봉사활동 여부였다(Table 4).

자녀 동거 여부는 배우자 동거 여부와 다르게 경제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존성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김지은(2011: 39)의 연구결과에서 자녀보다 배우자동거 여부가 의존성에 더 영향을

Table 5. Differences of Economic Dependency by Economic Related Factors

economic		(N=204)				
Variables	Categories	n	Dependency	t/F	p	
Economic Climf e	Home ownership	yes	138	2.87 ± .67	5.305***	.000
		no	66	3.39 ± .65		
	Job	yes	54	3.16 ± .71	2.416*	.017
		no	150	3.42 ± .65		
	The main cost area of living for old age	housing expenses	54	3.14 ± .78 a	2.834*	.039
		groceries	48	3.39 ± .71 a,b		
medical expenses		90	3.14 ± .63 a			
clothing/ culture expenses		12	3.59 ± .61 b			
Economic resources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family	yes	100	2.99 ± .65	-4.967***	.000
		no	104	3.45 ± .67		
	The number of assistant	0	104	3.46 ± .67 a	8.704***	.000
		1	50	3.23 ± .70 b		
		2	32	3.00 ± .66 b		
		3 ≤	18	3.00 ± .59 b		
	Financial assistance to the family	yes	50	3.62 ± .66	4.892***	.000
		no	154	3.10 ± .66		
	The number of benefical	0	154	3.10 ± .66 a	9.784***	.000
		1	32	3.48 ± .69 a,b		
2		15	3.84 ± .54 b,c			
3 ≤		3	4.13 ± .40 c			
psychological variables	5-11	25	3.60 ± .58 a	6.215**	.002	
	12-18	130	3.32 ± .69 b			
	19-25	39	3.00 ± .68 b			

미친다는 내용과 비슷하며, 가정 내의 주된 돌봄을 하는 도움의 근원은 주로 배우자라는 박경옥(2006)의 연구가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일 지라도 가족기능이 낮으면,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약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의존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창기·박일연, 2003: 18-19; Katherine 외 2, 2008).

2) 경제 관련요인에 따른 경제적 의존성의 차이

경제 관련 특성에 따른 의존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자가 주택 보유 여부, 직업 유무, 노후생활 지출 주 비용 부문, 가족으로 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 여부, 가족에게 주는 도움 여부, 도움을 주는 가족 수, 경제 관련 심리적 변인이었다(Table 5).

노후생활지출 주 비용 부문 중 의복비/ 문화생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노인일수록 경제적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식비가 노후생

Table 6. 직업유무·주택유무와 경제적 도움여부에 따른 경제적인존성 평균

경제적 도움 여부		직업유무			주택유무		
	도움여부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없음	도움 줌	3.6591	.64561	22	3.7342	.59877	38
	도움주지 않음	3.2563	.61063	32	3.2650	.62706	100
	합계	3.4204	.65051	54	3.3942	.65209	138
있음	도움 줌	3.5964	.67850	28	3.2750	.74116	12
	도움주지 않음	3.0541	.67385	122	2.7833	.62155	54
	합계	3.1553	.70507	150	2.8727	.66669	66
합계	도움 줌	3.6240	.65825	50	3.6240	.65825	50
	도움주지 않음	3.0961	.66440	154	3.0961	.66440	154
	합계	3.2255	.69936	204	3.2255	.69936	204

Table 7. 직업유무, 주택 보유 여부와 경제적 도움여부에 따른 경제적인존성 차이검정

소스	경제적인존성평균 (직업)				경제적인존성 평균(주택)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 도	평균제공	F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 도	평균제공	F
수정 모형	11.603a	3	3.868	8.822***	20.577a	3	6.859	17.428***
절편	1525.780	1	1525.780	3480.157***	1234.004	1	1234.00	3135.551***
직업유무	.581	1	.581	1.326	6.407	1	6.407	16.280***
도움여부	7.407	1	7.407	16.894***	6.682	1	6.682	16.980***
직업(주택)유 무 * 도움여부	.161	1	.161	.368	.004	1	.004	.009
오차	87.685	200	.438		78.711	200	.394	
합계	2221.660	204			2221.660	204		
수정 합계	99.287	203			99.287	203		

***p<.001

활지출 주 비용부분에 있어 경제적 의존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본 연구결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고령화사회에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에 관한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노인집단에서 의존성이 낮은 반면(p<.001), 경제적인 도움을 가족에게 주는 노인집단은 의존성이 높게 나

타났다(p<.001).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에 가족의 수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한편, 경제지표인 직업 유무 및 자가 주택 보유 여부와 경제적 도움 여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직업유무, 주택유무와 경제적 도움여부에 따른 경제적인존성 평균(Table 6)과 직업유무,

Table 8. 경제적 도움/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의존성의 차이

(N=204)				
도움여부	N	Mean±SD	F	p
주기만 함	24	3.90 ± .57 A	18.978***	.000
주기도하고 받기도 함	26	3.37 ± .64 AB		
주지도 받지도 않음	79	3.32 ± .65 AB		
받기만 함	75	2.86 ± .60 B		
Total	204	3.23 ± .70		

Table 9. Correlations between the Attributes of Social Support and the Economic Dependency

(N=204)

Variables	Economic Dependency
	r (p-value)
Informational support	-.087(.217)
Material support	-.131*(.041)
Emotional support	-.180**(.010)
Self esteem support	-.250***(.000)
Social Support	-.208**(.003)

*p<.05, **p<.01, ***p<.001

주택유무와 경제적 도움여부에 따른 경제적 의존성 차이검정은 다음과 같다 (Table 7)

(Table 6, Table 7) 의 직업여부 주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도움여부에서는 도움을 주는 경우가 3.62점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 경우의 3.10점보다 높게 나타나 (Table 7)와 같이 도움여부의 주 효과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F=16.894, p<.001). 또한 직업의 유무의 두 경우 모두 도움을 주고 있는 집단이 도움을 주지 않는 집단보다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Table 7)와 같이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에게 주는 도움 여부와 직업의 유무와의 상호작용 없이, 가족에게 주는 도움 여부가 경제적 의존성이 높아지는데 주 효과로 나타났으며,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이 주지

않는 노인보다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기주택 보유여부와 경제적 도움여부에 따른 경제적 의존성의 이원분산분석 결과에서도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을 보유한 노인이나, 그렇지 않은 노인 모두에서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이 주지 않는 노인보다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 Table 7)

3) 경제적 도움 및 수혜여부,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경제적 의존성의 차이

경제적 도움/경제적 수혜여부에 따른 경제적 의존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도움을 주기만 하는 집단의 경제적 의존성

Table 10. Regression of Economic Dependency

(N=204)

Variable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489	.403		3.691	.000		
sex	.136	.094	.091	1.448	.150	.783	1.277
with one's spouse	-.020	.106	-.014	-.184	.854	.573	1.744
with one's children	-.090	.112	-.066	-.800	.425	.449	2.228
The number of cohabitation	.036	.057	.066	.645	.520	.295	3.395
level of education	-.049	.012	-.288	-4.079***	.000	.618	1.619
Religion	-.069	.121	-.034	-.572	.568	.897	1.115
leisure activities	-.145	.110	-.105	-1.320	.189	.484	2.065
voluntary service	-.050	.107	-.029	-.466	.642	.771	1.297
one's home ownership	-.225	.193	-.152	-2.406*	.017	.779	1.284
job	-.009	.097	-.006	-.097	.923	.771	1.297
The number of assistant	-.164	.038	-.258	-4.284***	.000	.852	1.173
The number of benefical	.248	.054	.277	4.607***	.000	.855	1.169
economic satisfaction	-.209	.068	-.219	-3.057**	.003	.601	1.665
self efficacy	-.140	.053	-.176	-2.637**	.009	.697	1.436
social support	-.218	.142	-.103	-1.533*	.045	.687	1.455

R²=.481, adj R²=.426, F=8.661***(.000)

Durbin-Watson=1.875

*p<.05, **p<.01, ***p<.001

이 3.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받기만 하는 경우는 2.86점으로 가장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p<.001). 자기 효능감에 따른 경제적 의존성의 차이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1).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경제적 의존성이 낮았다(p<.05) (Table 8). 사회적 지지의 각 속성 별로 살펴본 결과 정보적 지지는 경제적 의존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자존감지(p<.001), 감정적지(p<.01) 물질적지(p<.05)의 순으로 경제적 의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4. 경제적 의존성 영향 요인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앞서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값을 구한 결과 1~3.40 범위의 값이 나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Table 10). 또한 더빈-왓슨 검정을 통해 1.89의 값으로 오차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 경로당 이용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인원(p<.001)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의존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p<.001)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생활만족도(p<.001), 자기효능감(p<.001), 자가주택보유여부(p<.05), 사

회적 지지($p<.05$)의 순으로 영향력은 42.6%로 나타났다 ($p<.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로당 이용노인의 경제적 의존성 정도를 파악하고, 경제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 송파구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 2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약 및 결론

첫째, 경로당 이용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은 3.23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경로당 이용노인을 위한 의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일반노인을 연구한 결과 3.43점(남정자, 1992)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의존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경우가 많고,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정운태, 2010) 노인 경제적 의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들에게 경로당이용을 통해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개발 및 자신감이 생겨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어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이은화, 2006).

둘째 경로당 이용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학력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의존성에 있어 학력 외에 배우자 동거여부, 여가활동 여부, 봉사활동 여부가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자녀 동거여부는 배우자 동거여부와 다르게 경제적의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존성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김지은(2011)의 연구결과에서 자녀보다 배우자동거 여부가 의존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가정 내의 주된 돌봄을 하는 도움의 근원은 주로 배우자라는 박경옥(2006)의 연구가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일 지라도 가족기능이 낮으면,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약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의존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창기·박일연, 2003: ; Katherine 외, 2008). 단순히 배우자의 동거 여부를 떠나 가족 기능과 관계, 관계정도, 가족지지 정도와 경제적의존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가족단위의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경로당노인을 위한 노인프로그램이 계획, 운영되어야 하겠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복지 서비스전달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역사회 자원이며 (이영세·이인수, 2002). 평균 수명의 연장 과 고령노인의 급속한 증가, 핵가족화,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 경제적 의존성의 자연스러운 증가 등의 현실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의존성을 낮추는 여가생활 및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경로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경로당 이용노인의 경제적 의존성 차이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경제적 수준 외에 가족 과의 경제적 지원관계와 심리적 변인에 대한 변수를 확인하였으며, 이 때 자가주택 보유 여부, 가족으로 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지 여부와 도움을 받는 가족의 수,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가족의 수, 경제적 만족도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의 경우,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노인에 비해 경제적 의존정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 의존 정도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나 가족의 지지와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나,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의 경우,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노인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높고(박미려, 2007),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의존정도가 낮다(조보경, 2010)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적 수준을 보는 지표로 사용되는 주택보유 여부와 직업유무의 변수를 이용하여(박미려, 2007)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지의 여부와 경제적 의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는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경제적 자립 정도나 경제적 능력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만으로 선행연구와의 상반된 결과를 단정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련하여 재확인 및 심층적 연구를 제안하며,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일부 통계결과로 그 가능성을 제시한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 의존성이 낮은 속성을 갖고 있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경제적 의존정도를 낮춰 의존성점수가 낮은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또한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여부와 경제적 의존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단면조사연구로 얻어진 결과이므로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전향적 조사나 후향성 조사로 추적하여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여부와 경제적 의존성의 정확한 선후관계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자가주택을 보유한 노인은 최소한 주거문제에 있어서 타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으며, 더 나아가 자손의 복지에도 영향을 주고 위험 대처 능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Ando and Modigliani, 1963), 자연스럽게 경제적 의존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 경제상태가 경제적 의존속성 및 의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박경옥, 2004)와 노인이 처해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 특히 노인의 경제적 수준은 노인의 심리적·경제적 안녕에 크게 영향을 미친

다(박미려, 2007). 가족으로 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의존성이 낮아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으며($p<.001$),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의존성이 감소한다고 하여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p<.001$). 가족으로 부터의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와 의존성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나, 노인의 사회적 지지 중 물질적 지지는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을 감소시킨다는 김지은(2011)의 연구 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노인에게 긍정적 경제적 지지의 방안으로 단순한 소득 급여가 아닌 노인의 노동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지지가 가능하도록 사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로 의존성 증가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편,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의존성이 높아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으며($p<.001$),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의존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p<.001$). 이 선행연구결과에서 손병돈(1998)은 가족 간에 경제적 자원이 이전되는 경우 제공자의 경제적 능력이 원인 중 하나라고 하였고, 이재은(2009)은 경제적 능력이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심리적 변인에 투입된 변수 중 현재 경제상태 만족도가 의존성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용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감소한다는 이재은(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절대적인 경제정도 뿐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경제상태 만족도가 의존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경로당 내 경제적 심리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적인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경로당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지지의 요인 중 가장 높은 요인은 감정적지지(2.34점), 자존감지지(2.24점)으로 각각 $p<.01$ 과 $p<.001$ 로 경제적 의존성과 가장 높은 상

관관계를 갖고 있어 이 요인을 강조한 사회적 지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로당 노인의 프로그램과 그 효과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이재모, 2004)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선이 요구된다. Bandura의 자기 효능감 증진 방안을 이용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며, 이러한 연구에서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을 이용하여 경제적 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 공동 작업을 이용한 소득 보충의 프로그램 연계, 상담 방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경로당 특성을 이용한 개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 째, 경제적 의존성의 최종 회귀모형에서 전체 설명력은 42.6% ($p < .001$)였으며, 학력, 자가주택 보유여부, 가족으로 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 및 가족의 수, 가족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 여부 및 가족의 수, 경제적 만족도,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경제적 의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경로당이용노인의 의존성이 보통 이상의 의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경제적 의존성을 연구할 때 예방단계에서의 방안의 필요하다. 연구결과는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경제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경제적 변수인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노인복지기관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초고령화사회에 경제적으로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노후대책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노인을 위한 효과적인 경제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후속연구의 기초자료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무작위 집락 표출을 시행하였으나, 한 구역 당 경로당 수를 편의 추출하였으며, 한 구만을 선정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전체 노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일반노인 및 다양한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제안하며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김광순(2005). 한국의 고령사회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 욕구에 대한 인식조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기미·김현경(1996). 노인환자의 의존성과 가족지지와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8(1), 109-123.
- 3) 김세중·백영호·서혜림·염원상·이의철(1998). 집단에 따른 노인들의 자가건강관리행태, 일상생활수행능력,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Science, 14, 133-143.
- 4) 김지은(2011). 취약계층 노인의 의존성 관련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창기·박일연(2003). 노인의 의존성 및 부양자 행동통제기술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농어촌 경로당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지, 20, 7-28.
- 6) 남정자(1992). 노인환자들의 의존성과 가족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2-86.
- 7) 노지혜(2005).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 8) 박경민(1994).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노년기 우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박경옥(2004). 노인의 의존성과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간호발전연구소지, 9(1) : 36-42.
 - 10) 박경옥(2006).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7(3). 346-353.
 - 11) 박미려(2007). 은퇴 노인의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및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박정미(2008). 노인의 대처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보건복지가족부.(2010.) 노인실태조사 -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http : //www.mw.go.kr](http://www.mw.go.kr).
 - 14) 손병돈(1998). 가족 간 소득이전 결정요인의 계층 간 비교. 사회복지연구원 연구보고서.
 - 15) 송미순(1991). 노인의 생활기능상태 예측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송영민(2002). 여성 노인의 의존성과 학대경험에 관한 일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안은숙·최영희(1999). 노인의 자긍심, 무력감, 의존성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회지, 11(1), 96-107.
 - 18) 오영실(2006). 노인의 의존성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 39.
 - 19) 유성호(2009). 경로당 발전방안 탐색 : 경로당 이용경험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연구학회지, 29(4), 1463-1478.
 - 20) 이명희(2003). 여성독거노인의 생활불안에 관한 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이숙희(2008).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건강특성과 케어 및 재할간호 만족도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이선이(1998).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이영세·이인수(2002). 경로당 이용 노인의 공간 기능면에서 있어서의 문제점 인식도. 노인복지연구. 16, 193-217.
 - 24) 이영자(1999). 노년기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이은화(2006). 노인복지회관 이용 후 노인의 삶의 경험(Ⅱ) : 근거이론 접근방법. 대한케어복지학회지, 1(3), 166-205.
 - 26) 이인정(1999).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19(3), 35-50.
 - 27) 이재모(2004). 노인의 경로당 이용 특성과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지, 25, 101-120.
 - 28) 이재은(2009).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이행숙(1996). 노인의 노후생활준비의식.행동 및 경제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0) 임춘식 외 (2006). 서울시 경로당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지, 31, 313-343.
 - 31) 전숙자(2009).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정윤태(2010). 노인의 사회적 배제 규정요인에 관한 연구 : 건강 및 경제 의존성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3) 조보경(2010).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의

- 존성 심화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 성인지적
관점에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통계청. 2011. “노인복지시설현황”. [http : //
www.nso.go.kr](http://www.nso.go.kr).
- 35) Adams, M., Bell, M., Brandf, J., Brickman,
A. M., Marder, K., Rida, A. and Stem, Y.
(2002).“Longitudinal assessment of patient
dependence in Alzheimer diseas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59, 1304-1308.
- 36) Azliza R., Brickmen, A. M., Jason B.,
Karen, B., Karen, M., Marilyn, A., and
Yaakov, S.(2002). “Longitudinal Assessment
of Patient Dependency in Alzheimer
Disease.” Arch Neurol, 58, 1304-1308.
- 37)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Cliffs,
NewJersey Pretice-Hall, Inc.
- 38) Brueunlin, D. C., Schwartz, R. C,m and
Mackue, K.(1997). Meta-frame works:
Transcending the models of family therapy:
Jossey-Bass.
- 39) Carol, M., Katherine, F., and Nathan, C.(
2008). “The adaptive and maladaptive faces
of dependency in later life: Links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outcomes.” Aging
and Mental Health, 12(6), 700-712.
- 40)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e
of life stress.”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41) Cohen, S., and Syme, S. L.(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 Academic
Press.
- 42) Cott, C. and Gignac, M, A.(1998). “A
conceptual model of independence and
dependence for adults with chronic physical
illness and disability.” So Sci Med, 47(6),
739-753.
- 43) Dassen, T., Dijkstra, A., and Lohrmann, C.(
2003). “Care dependency : testing the German
version of the care dependency scale in
nursing homes and on geriatric wards.”
Scand J caring Sci,, 17, 51-56.
- 44) Gardner, D.K., and Helmes, E.(2006).
“Interpersonal dependency in older adults
and the risks of developing mood and
mobility problems when receiving care at
home.” Aging and Mental Health, 10(1):
63-68.
- 45) Middle. B., Planting E., Schans. C. P., and
Tiesinga, L. J.(2006).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Northwick Park Dependency
Score as a generic nursing dependency
instrument for different rehabilitation patient
groups.”Clinical Rehabilitation, 20, 921-926.

- 투 고 일 : 2012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10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23일